

한의학 학술 발전 견인차 역할

최초 동방학회로 창립

대한한의학회(회장 이원철)는 지난 1952년 대한한 의사협회가 창설된 3년 뒤인 지난 55년 12월 동방학회(東方學會)라는 명칭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함으로써 태동했다. 이후 동방학회라는 명칭이 한국동양의학회로 개칭되었고 지난 62년 9월 대한한의학회로 명칭이 개정되면서 현재의 대한한의학회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이후 대한한 의사협회로부터 분리 독립된지는 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대한한의학회는 한의학의 세계화와 국제화 속에서 그 중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의학이 예방의학으로서 뿐만 아니라 치료의학으로서 당당히 서양의학과 견줄 수 있도록 막강한 학술적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

대한한의학회는 △한의학의 이론 및 기술의 연구 발전 △분과별 학회의 인준 및 지도육성 △한의학도서의 수집 및 학술지 발간 △한의학의 국제교류 및 협조 △한의학 교육 △각 분과별학회 상호간의 연락, 조정, 친목 도모 △전공의 교육 및 한의사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의 업무수행을 기본 방침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분과별 학회 활성화를 위한 학회지 발간 지원금 지원 및 한의학술용어제정, 한의표준의료행위개발연구, 전공의 지도감독 및 학습목표개발, 전문의고시 연구, 한방처방명의 표준코드화 연구, 한방의료수가개발연구, 한방의료제도 개선방향 연구, 한의학교육 발전 방향 연구, 한방진단서지침 연구 등을 수행한다. 대한한의학회의 자체 학술지로 대한한 의학회지를 매년 4회 발간하며 영문한의학회지는 연 1회 발간한다.

한방 의료행위 표준화 주도

대한한의학회는 학회의 주요한 기본연구 중에서도 특히 한의학술용어의 제정 연구를 통한 한방의료 용어 표준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의표준의료행위

의 개발연구를 통해서 한방 의료행위를 표준화하고, 한의임상처방의 표준코드화 연구를 통해 모든 한방 처방의 표준화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 한방의료 교육 연구분야에서는 한의과대학의 한의학 교육연구를 통해 보다 더 나은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한방전문의 제도 도입에 따른 내실있는 전문의 교육을 위한 제반 연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전국 학술대회 개최

대한한의학회의 분과학회는 70년대 접어들면서 한의과 대학의 교실을 중심으로 그 활동이 점차 전문화되어 갔는데 현재 25개의 정회원학회와 7개의 준회원학회가 있다. 이들 각 분과학회는 연 2회이상의 학회지를 발간하며 학술집담회 및 학술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국제적 학문교류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대한한의학회는 전국적 규모의 학술대회인 전국한 의학학술대회를 지난 1974년부터 2000년까지 22회에 걸쳐 학술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1998년부터는 대한한의학회가 주최하고, 산하 22개 분과학회가 주관해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눈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뤘으므로써 전국 한의학 학술대회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대한한의학회의 임원구성엔 회장, 부회장 3명, 이사 11명으로 이뤄지며, 각 이사에 해당하는 위원회 외에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의 발전을 위해 대학교육협의회와 유기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기초의학특별위원회와 임상의학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한의학회와 협회 임원 겸직 못해

대한한의학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평의원총회를 두고 있으며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개최한다. 대한한의학회의 임원은 평의원이 될 수 없으며,

대한한의사협회 임원이나 대의원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한의협과 학회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무국은 총무부와 학술부로 구성됐고 현재 2명의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한한의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한의사협회 예산상의 지원금 및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되며 현재 한해 예산액은 3억여원이다.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며 각 연도의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은 평의원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대한한의학회 40여년의 역사중 가장 큰 업적을 남긴 것은 한의학용어의 정리 및 현대화에 기여한 점이다.

한의학 용어 정리 큰 업적

지난 70년 대한한의학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세계 보건기구에 제출할 '질병상해 및 사인통계분류 병명제정' 사업을 의뢰받고 1천여페이지에 달하는 한방병명을 처음으로 공식 정리함으로써 한의사의 진단서 작성이 국제적으로 공인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대한한의학회는 또 71년부터 당시 의료법에 근거한 개업 한의사 보수교육사업을 주관해 시행하였고, 한의학상을 제정, 한의사들의 학술연구 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외국의 침구학자들을 초청, 강연회를

펼침으로써 한의학의 국제교류에 기여하고 이러한 취지의 일환으로 지난 73년 국내 처음으로 세계침구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의서 고전번역사업 착수

대한한의학회는 1979년부터 한방의료실태조사 등 정부의 동양의학개발 육성협력사업에도 깊이 관여하여 현 보건복지부의 전신인 보건사회부 예산지원을 받아 한의서 고전번역사업에 착수했다. 대한한의학회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 80년대 말 한의학서적인 향약집성방 85권 중 25권이 우선 완역되기에 이르렀는데 국한문을 혼용했으며 처방의 용량을 그램(g)으로 표기했다. 곧이어 26권부터 50권까지를 완료했으나 나머지 부분은 정부예산의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대한한의학회는 학회 소식지로 지난 1963년 5월부터 대한한의학회보 창간호를 발간해오고 있다. 대한한의학회는 지난 1966년 한의학과 관련된 고전(古典)정리사업의 일환으로 동의보감 번역사업과 한의학용어제정사업을 맡아 한의학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1986년에는 해방후 지금까지 40년간의 한의학 관련 저서 및 각종논문을 총집합하여 정리한 한국한의학술총람을 편찬 출간함으로써 5천년 한의학 연구결과의 집대성을 앞당기기도 했다. <김상구 기자>

인터뷰



이원철
대한한의학회 회장

"대한한의학회는 한의학이 학술분야에서 세계속의 중심의학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하고, 한의학의 세계화, 국제화속에서 그 중심점으로서의 역할을 대한한의학회가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학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한의학회도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 또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것도 우리 학회의 역할이지요."

한의학이 예방의학으로서 뿐만 아니라 치료의학으로서 당연히 서양의학과 견줄 수 있도록 학술적인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대한한의학회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이원철 회장은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라는 신념으로 한국적인 것을 가

장 현대화하여 세계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의학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이원철 회장은 대한한의학회 산하 정회원학회와 준회원학회의 활성화를 통해 세계화, 국제화를 지향하고, 무엇보다 내실 있는 연구를 통해서 국내외에 수준높은 논문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분과학회의 활성화가 곧 한의학의 발전'이라는 신념으로 전 한의학회원이 힘을 합쳐 학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한 단결된 힘을 전 세계 한의계에 보여줄 각오다.

이원철 회장은 대한한의학회가 한의학술용어의 제정을 통해 표준화된 한방의료 용어를 연구중에 있으며 한의표준의료행위의 개발 연구를 통해 한의학의 의료행위를 표준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한의임상처방의 표준코드화 연구를 통한 모든 한방처방의 표준화도 실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화, 국제화 지향"